

서양 음악에서 기악은 르네상스 말기에 탄생하였지만 바로크 시대에 이르면 악기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장르를 형성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하지만 가사가 있는 성악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에게 기악은 내용 없는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비난을 면하기 위해 기악은 일정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1문단

1. 서양 음악에서 기악은 르네상스 말기에 탄생하였지만 바로크 시대에 이르면 악기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장르를 형성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 기악이라는 놈의 발전을 얘기한다. 르네상스 말기보다는 바로크 시대가 훨씬 중요할 것이며,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악기', 어떤 '장르'들이 나타났는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르네상스 말기, 바로크 시대-> '시대'가 나왔을 때는 역사(즉 변화, 문제해결) 프레임 떠올려.

2. 하지만

하지만이 나오면 일단 멈추고 반댓 말을 만들어보자.

앞 문장의 내용이 결국 바로크 시대에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런 발전에 반대되는 내용이 무엇일까???

발전 <-> 부족 (한계)

라는 우리의 생각의 틀을 생각해보자.

아하, 하지만 뒤에는 바로크 시대 기악 발전의 한계에 대해 얘기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3. 하지만 가사가 있는 성악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에게/ 기악은 내용 없는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았다.

-> 우리는 하지만 때문에 이 부분이 기악의 한계에 대한 얘기일 것임을 이미 안다.

그러니 기악은 내용 없는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았다는 표현은 예측가능하다.

하지만 이 문장에서 하나 더 주목할 점이 있다. 문장 자체에 두 대상((성악과 기악)의 차이점이 암묵적으로 드러나 있다. 두 대상이 나오면 차이점을 항상 찾아보자

성악과 기악의 차이점을 논의하고 있다.

성악은 가사가 있고, 기악은 가사가 없다. 라는 차이점이다.

가사가 없기 때문에 내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며 공허한 울림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

4. 이러한 비난을 면하기 위해 기악은 일정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비난-> 기악은 내용 없는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이다.

지칭어를 적극 활용하자.

일정한 의미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악에는 가사가 없는 것, 내용이 없는게 문제다.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총평: 1문단은 글의 시작인데, 글의 시작에서 문제제기를 한다.

기악이라는 놈이 일정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의미를 갖게 하는지(문제에 대한 답). 그것이 이 글의 핵심이 될 것이다.

바로크 시대의 음악가들은 이러한 과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정서론'과 '음형론'에서 찾으려 했다. 이 두 이론은 본래 성악 음악을 배경으로 태동하였으나 점차 기악 음악에도 적용되었다. 정서론에서는 웅변가가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듯 음악가도 청자들의 정서를 움직여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곡에 하나의 정서만이 지배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연설에서 한 가지 논지가 일관되게 견지되어야 설득력이 있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2문단

1. 바로크 시대의 음악가들은 이러한 과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정서론'과 '음형론'에서 찾으려 했다.

-> 쉽다. '정서론' '음형론'은 기악에 의미를 부여해줄 것이고,

마찬가지로 두 개가 나왔으니 둘의 차이점을 글을 읽으면서 찾아야겠다.

● ' ' 이런 표시는 이것이 중요한 화제 혹은 제제 라는 애기다. 제발 알아먹자...

2. 이 두 이론은 본래 성악 음악을 배경으로 태동하였으나 점차 기악 음악에도 적용되었다.

크게 주용하진 않은거 같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

3. 정서론에서는 웅변가가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듯 음악가도 청자들의 정서를 움직여야 한다고 본다.

-> 정서론을 정의해준다.

정서론이 무엇인지 헷갈리거나 이해가 안 간다면 이 문장은 앞으로 자주 왔다갔다 해줘야 한다

4.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곡에 하나의 정서만이 지배적이어야 한다.

그렇게-> 정서를 움직이게

5. 그것은 연설에서 한가지 논지가 일관되게 견지되어야 설득력이 있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그것 -> 한 곡에 하나의 정서만이 지배적이어 하는 것

총평

내용은 쉽다. 음악이나 연설이나 정서를 움직여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뭐가 빠졌다...

분명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서론' 과 '음형론' 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정서론' 밖에 얘기를 안했다. 그러면 '음형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다고 추론 할 수 있다.

또 이제 정서론이 무엇인지 아니까 우리는 음형론에 대한 내용들을 이 문단의 내용과 비교해 볼 수 있다.

3문단.

한편 음형론에서는 가사의 의미에 따라 그에 적합한 음형을 표현 수단으로 삼는데, 르네상스 후기 마드리갈이나 바로크 초기 오페라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바로크 초반의 음악 이론가 부어마이스터는 마치 웅변에서 말의 고저나 완급, 장단 등이 호소력을 이끌어 내듯 음악에서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낳는 장치들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가사의 뜻에 맞춰 가락이 올라가거나, 한동안 쉬거나, 음들이 딱딱 끊어지게 ㉠ 연주하는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1. 한편 음형론에서는 가사의 의미에 따라 그에 적합한 음형을 표현 수단으로 삼는데, 르네상스 후기 마드리갈이나 바로크 초기 오페라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 설령 그 예 라는 말이 써 있지 않더라도 예시임을 찰떡 같이 알아 채야한다.

문장은 유기성을 갖는다. 개별신새끼가 아니면, 무조건 관련 있는걸 얘기한다.

그런데 앞 부분을 보면

음형론에서는 가사의 의미에 따라 그에 적합한 음형을 표현 수단으로 삼는데 라는 상당히 와닿지 않는 추상적인 얘기가 나온다.

추상적인 얘기가 있을 때 우리는 뒤에 구체적인 예시가 올 것임을 예측해야한다.

또 추상적인 말 뭉치의 요소와, 구체적인 말 뭉치의 요소를 대응시켜야한다.

그리고 재밌게도 바로 뒤에

르네상스 후기 마드리갈이나 바로크 초기 오페라

라는 상당히 구체적인 것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그에 대한 예시라는 생각을 해야지.

아쉽게도 마드리갈, 오페라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사의 의미에 따라 음형을 정하는지는 이 문장 내에 나와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뒤에 나와있겠지

2. 바로크 초반의 음악 이론가 부어마이스터는 마치 웅변에서 말의 고저나 완급, 장단 등이 호소력을 이끌어 내듯 음악에서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낳는 장치들에 주목하였다.

->

바로크 초반의 음악이론가 앞서서 예시로 바로크 초기 오페라를 들었던 점을 생각하자.

주목 했다고 한다. 주목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지만, 주목된 대상은 중요하다.

그 대상은 /음악에서 /웅변에서의 말의 고저, 완급, 장단등 호소력을 이끌어 내는 장치에/ 상응하는 음악의 요소이다.

난 크게 막연하다고 느끼지는 않는데, 명확하게 음악의 어떤 요소가 웅변에 대응되는지 밝히지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겠다.

3. 예를들어 -> 예시가 나오면 항상 앞 뒤를 대응시켜야한다.

가사의 뜻에 맞춰 가락이 올라가거나, 한동안 쉬거나, 음들이 딱딱 끊어지게 연주하는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올라가거나 -말의 고저 한동안 쉬거나 완급- 한동안 쉬거나 장단- 음들이 딱딱 끊어지게

사실 나는 완급이 한동안 쉬는 거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아다리가 맞는다.

문단 총평: 예측대로 음형론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음... 할 얘기 다 한거같다.
 그럼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올까..?
 솔직히 모르겠다. 넘어가보자.
 찢든 문제는 이런 부분들에서 나올거다.
 음형론하고 정서론 사이의 차이를 물어볼거고
 각각이 의미를 형성하는 방식을 이해했는지 물어봐야겠지\
 4문단

바로크 후반의 음악 이론가 마테존 역시 수사학 이론을 끌어
 들여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음 언어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기존의 정서론을 음악 구조에까지 확장하며
 당시의 음조(音調)를 특정 정서와 연결하였다. 마테존에 따르면
 다장조는 기쁨을, 라단조는 경건하고 웅장함을 유발한다.

1. 바로크 후반의 음악 이론가 마테존 역시 수사학 이론을 끌어들이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소통 될 수 있는 음 언어에 대해 설명하였다.

-> 아 뭘 내용 나올지 궁금했는데 이제 좀 알겠다. '정서론' '음형론' 이후에도 기악에서 '의미'를 찾는 방식들이 계속 났고 그것들에 대해 얘기해보자는 거네.

a. 애네가 '정서론' '음형론'이랑 같았으면 애네를 언급할 이유가 없다.

심지어 바로크 초반에서 바로크 후반 으로 넘어왔다. 이게 바로 역사야. 뭐가 변했잖아.

그러니까 차이를 찾아보자 위랑 비교해서.

이 사람은 '음 언어'라는 것을 얘기하네. 음형이 아니라.

b. 문장이 상당히 추상적이다. 예시를 기대해보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오겠지.

2. 또한 기존의 정서론을 음악 구조에까지 확장하며 당시의 음조를 특정 정서와 연결하였다.

a. 정서론이 뭘지 까먹을때쯤 났다. 이때 딱 2문단 가서 정서론의 정의 줄쳐 놓은 것을 읽어 보자. 찾아보니까 음악도 웅변처럼 정서를 움직여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음악 구조에도 정서가 있다는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인거같다. 그 음악구조중 하나가 음조라는 거고, 그 음조를 특정 정서와 연결하였다고 한다.

'특정 정서' 이런 추상적인 말이 나오면 항상 뒤에 예시를 생각하자.

3. 마테존에 따르면 다장조는 기쁨을, 라단조는 경건하고 웅장함을 유발한다.

예시가 나오면 대응시켜줘야한다.

당시의 음조 - 다장조, 라단조 특정 정서 - 기쁨, 경건하고 웅장함
 이다.

문단 총평: 무슨 얘기가 나올지 막막했는데 강 무난한 얘기가 나왔다.

뭐 마테존 얘기랑 음형론 정서론을 구분하길 바랄 수 있지.

음조와 정서를 연결했다고 하고 이걸 '기존의 음형론이나 정서론'이 한 짓이라고 하면 안되겠지. 확장됐느니 뭐니 해도 다른건 엄연히 다른거다.

수능 국어는 이런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하는 시험이다.

5문단

그러나 마테존의 진정한 업적은 음악을 구성적 측면에서 논의한 데 있다. 그는 성악곡인 마르첼로의 아리아를 논의하면서 그것이 마치 기악곡인 양 가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주제 가락의 착상과 치밀한 전개 방식 등에 집중하였다. 이는 가락, 리듬, 화성과 같은 형식적 요소가 중시되는 순수 기악 음악의 도래가 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한 세기 후 음악 미학자 한슬리크는 음악이 사람의 감정을 묘사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음들의 순수한 결합 그 자체로 깊은 정신세계를 보여 주는 것이라 주장하기에 이른다.

1.

그러나 마테존의 진정한 업적은 음악을 구성적 측면에서 논의한 데 있다.

a. 그러나-> 앞 문단에서 마테존이 한 일을 언급했다. 나는 이전처럼 이것의 한계에 대해 언급할 줄 알았다.

그런데 뒤를 보니까...

진정한 업적 얘기가 나오네.. 예측과 다르다.

당황하지 말고 오히려 좋아해야한다. 생각해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하나 더 는 거다!

다음에 그러나를 봤을때는 이런 전개도 생각해보자.

b. 음악을 구성적 측면에서 논의한 데 있다. 라는 말 존나 추상적이고 와닿는게 없다.

뒤에 예시가 나올거다.

예시가 나오면 추상적인 문장과 대응시켜야한다.

2.

그는 성악곡인 마르첼로의 아리아를 논의하면서 그것이 마치 기악곡인 양 가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주제 가락의 착상과 치밀한 전개 방식등에 집중하였다.

a. 성악곡인 마르첼로의 아리아 -> 존나 구체적이지? 예시다. 예시때는 뭐한다고?

예시가 나오면 추상적인 문장과 대응시켜야한다.

성악곡인 마르첼로의 아리아 - 음악

주제 가락의 착상과 치밀한 전개 방식 -구성적 측면

b. 대비가 드러나 있다. 가사는 언급하지 않고, 주제가락의 착상과 전개만 언급한다 했으니.

가사는 구성적 측면과는 반대되는 개념임을 추론할 수 있다. 즉 가사를 제외한 나머지들인거 같다.

3.

이는 가락, 리듬, 화성과 같은 형식적 요소가 중시되는 순수 기악 음악의 도래가 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

a. 이 - 성악곡에서 가사 말고 구성적 측면을 보는 것

(지겹도록 말하지만 이,그,저 같은 지칭어가 나오면 이게 뭔지 찾아서 대응시켜라)

그래 구성적 측면을 보면 성악같은것도 가사가 중요해지지 않고, 더 이상 가사를 볼 필요가 없어지겠지..

b. 가락, 리듬, 화성

이라는 나열이 이뤄져 있다.

나열이 이뤄져있으면 항상 생각해야하는 것은 공통점이다.

그리고 재밌게도 공통점이 바로 뒤에 나온다. 이 셋은 형식적 요소이다.

거꾸로, 형식적 요소, 아니면 지문 내의 구성적 측면이 뭔지 잘 모르겠으면

가락, 리듬, 화성, 음조 등을 떠올리면 된다.

c. 그래서 순수기악의 시대가 온덴다. 뭐 이걸 그런가보다 할 수 있다.

마테존이 대단한 사람이네.

4.

실제로 한 세기 후 음악 미학자 한슬리크는 음악이 사람의 감정을 묘사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음들의 순수한 결합 그 자체로 깊은 정신세계를 보여 주는 것이라 주장하기에 이른다.

a. 한 세기 후이다. 뭔가 달라졌을 거다.

확실히 달라졌네. 예전에는 구조가 중요하다는 거였는데 가사말고, 이제는 강 구조 그 자체로 정신세계가 보여진다고 하네. 구조를 강조하는 정도가 훨씬 세졌네

b. 이 문장을 읽고 보니까 이전 문장 c 코멘트를 한게 후회된다.

이런 시대의 도래가 멀지 않았다니까, 뒤에는 순수 기악 음악이 도래한 순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다고 추론했어야한다.

거꾸로 순수기악음악은 사람의 감정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음들의 결합에만 관심이 있따는 얘기다.

나도 이렇게 놓칠때가 있다. 이러면 다음에는 이런거 보고 안 놓치면 된다.

아 씨-발 존나 힘드네.

1시간 20분 걸렸습니다. 해설쓰는데 ^오^

Written by 서상범.

공부하는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